##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찬양하다'(독사조)** : '찬양하다'라고 번역된 '독사조'는 신약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그리스말 명사 '독사(영광)'의 동사 형태입니다. 치유 받은 나병환자가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낸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참된 하느님을 드러내셨으며 그런 예수님이 참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들이 참된 믿음을 지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 2025년 희년 성지순례 안내

- 일시 : 2025년 11월 1일 ~ 2일
- 장소 : Divino Amore 성모 성지 순례 및 성문 (Parta Santa) 행렬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주일미사 참례
- 숙소 : Ergife Palace Hotel & Conferene Center

♣ 모임 / 회의

- 사목 회의 : 10월 12일 (금일), 미사 후 , 오라토리오
- 청년 회의 : 10월 19일 (차주), 미사 후 , 오라토리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39.60€ • 교무금 000.00€

**전례 성가**

입당 : 270 (로사리오의 기도)
봉헌 :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체 : 174 (사랑의 신비)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파견 :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전례 봉사**

| 이번 주일(10월 12일) | 다음 주일(10월 19일) |
|---|---|
| 1독서: 김효경 릿다 | 1독서: 허희숙 마리아 |
| 2독서: 윤상돈 알렉산드로 | 2독서: 정명용 미카엘 |
| 복 사: 문수빈 미카엘라 / 강윤이 스텔라 | 복 사: 안태리 소화데레사 / 정이한 다윗 |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 2025년 10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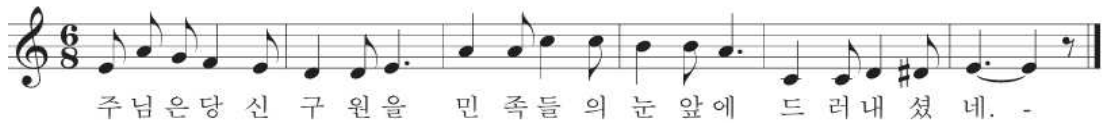
### (녹)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 미사 전례

**본기도**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1독서** (열왕기 하권 5,14-17)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14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15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16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 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17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2,8-13)
사랑하는 그대여, 8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9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10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12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13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복음** (루카 17,11-19)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곳곳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굽어살피시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대화로 타협하고 참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군인 주일을 맞아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애쓰는 군인들을 보살펴 주시어, 어려움을 이겨 내고 무사히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어려움을 겪는 가정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어,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힘을 얻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엄위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